

손님은 '텍스크'... 업주는 '눈치보기'

다중이용시설 내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 날 카페·PC방 마스크 불량 착용 고객 여전 목적 업주들 "다양한 업종 고려한 탄력적 대책 필요"

모든 다중이용시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9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12일부터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PC방과 노래방,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모든 실내에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13일 오후 제주시 화북동의 한 카페, 음료를 마신 후 마스크를 바로 착용하는 손님도 있었지만 마스크를

벗거나, 마스크로 입술만 가리는 일명 '텍스크'를 한 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여럿 확인됐다. 아예 마스크를 벗은 채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도 목격됐다.

카페 업주 A씨는 "대부분의 손님들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나, 이야기를 할 때 벗고 있는 경우가 있어 매장을 돌며 마스크를 쓰라고 안내하고 있다"며 "하지만 종업원 수는 적고 주문받고 음료를 디저트를 만드는데 바빠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PC방도 마찬가지다. 손님들은 입

구 앞에서 발열체크를 진행하고 안심코드를 찍고 들어오는 등 수칙을 잘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게임을 하는 손님들의 일부는 텍스크를 하거나, 아예 벗고 있는 경우가 목격됐다. 화상실이나 흡연실 이용을 위해 이동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모습도 확인됐다.

시민 B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게임하는 손님들을 보면 답답하고, 지인들이러기 이어야 거리를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진다"며 "마스크 상시 착용에 대해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PC방 업주 C씨는 "손님들이 방문하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안내를 하고 있지만 자주 말하면 손님이 기분 나빠해 매장을 옮겨버

리면 결국 매출 손해보고 이어져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한다"며 "다양한 업종을 고려한 탄력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도민 건강이 제일 우선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이 부담 되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지만 협조 요청을 부탁드립니다"라며 "애로사항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에 지침 규정에 대해 수정·반영해달라고 지속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업주가 사업장 방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역수칙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제주 어제 코로나 신규확진 '0명' 누적 확진자 663명... 도 "마음놓긴 일러"

4월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던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오랜만에 멈췄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선 지난 12일과 13일 오후 5시까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663명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마음을 놓기는 이르다. 지난 주 발생한 도내 확진자 수는 일별로 4일 2명, 6일 3명, 7일 5명, 8일 2명, 9일 7명, 10일 8명 등 4월 5일과 8일을 제외하면 매일 늘었다. 이달

들어선 총 3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올해 누적 확진자만 242명에 이른다.

이달 들어 수도권 등 타 지역을 방문했거나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다.

한편 13일 기준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39명, 격리 해제자는 625명으로 파악됐다. 도내 가용 병상은 400병상이며 자가격리자 수는 46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내주부터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실시

7900여명 대상 AZ 백신 접종

코로나19 조기접종을 위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이 다음 주 실시된다.

제주보건소는 오는 19일부터 코로나19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위탁의료기관을 조기에 가동해 접종 속도를 높이고 다인용 백신 접종에 따른 폐기량 최소화 및 백신 배송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제주시 관내에는 40개의 위탁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이번에 지정된 위탁의료기관은 백신보관 전용냉장고 보유 및 온도 유지 장치 보유·관리가 가능하다. 또 접종 시설 및 접종 후 관찰 장소가 마련된 곳으로, 접종 실시 전까지 의사 및 간호 인력의 온라인 사전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해당 조기접종 대상자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대상자로 장애인·노인·보훈 대상 돌봄 종사자, 병·의원 및 약국 종사자, 투석환자, 항공승무원 약 79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에 사전예약해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접종대상자별 사전 예약기간과 접종 기간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노인·보훈대상 돌봄 종사자, 항공승무원은 사전예약기간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접종기간은 이달 19일부터 24일까지다. 병·의원 및 약국 종사자는 사전예약기간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접종기간은 이달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운영한다. 투석환자 인 경우 사전예약기간 오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접종기간은 5월 3일부터 8일까지 받을 수 있다.

이윤형기자 yhle@ihalla.com

농산물 창고 화재... 3000만원대 피해

제주시 구좌읍의 한 농산물 작업용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수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13일 제주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7시47분쯤 제주시 구좌읍 한 농산물 작업용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은 인원과 장비를 동원해 40여분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이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무 건조기 3대 등이 소실되는 등 소방 추산 348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무 건조기 모터가 과열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자



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무 건조기는 업체측이 구입한 지 10년 이상 지난 노후화된 제품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성기자



제주지역 세월호 생존자들이 13일 제주지방법원 정문에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사고 후 아직까지 트라우마 시달려"

제주지역 세월호 생존자 15명 국가상대 손해배상

세월호 참사 7주년 사흘을 앞두고 제주지역 세월호 생존자 15명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 촉구와 함께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신청했다.

이들에 따르면 2015년 당시 정신과 전문의들은 '재난 후 발생한 트라우마는 최소 2년이 지난 후에 평가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생존자들은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법에 예외를 둘 수 없어 6개월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배상금 지급은 없다'는 입

장을 취해 생존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후유장애진단서를 받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준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당시 세월호 생존자들은 생계를 위해 4-5년 동안의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의 30%만을 받는 것으로 배상금 지급을 수령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생존자 윤모씨는 "사고 이후 트라우마로 인해 아직까지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등 하루하루를 고통속에서 보내고 있다"며 "하루빨리 정신적인 치료와 더불어 세월호 사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강민성기자

학교 체육시설에 CCTV 설치된다

학교 운동부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교내 체육시설 주요지점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폭력 등 인권침해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학생 선수가 이용하는 실내의 훈련장, 기숙사와 훈련시설 출입문 등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에 학생선수 보호를 포함했으며,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스포츠분야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교육에는 인권 침해 유형과 예방 교육, 인권 침해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오은지기자

그랜드보청기

2021히트브랜드대상 품목이 특가할인!
전량보통품만 제출 서류 업무 대행 해드립니다.

2021 히트브랜드 대상 1위
THE HIT BRAND AWARD 1ST PLACE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샅촌들 혼자 전화 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중전식 보청기 8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O를 검색해 주세요
064-725-9275

한라일보 서사리 사거리 동쪽 100m 구행복빌딩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 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제주은행, 제주우체국, 시외버스터미널, 오라파출소, 한라체육관, 시내수영장

대표 **임창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잔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연작장애, 토양 소독 살균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토양 공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YouTube, 석회질소,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